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bottom book of the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and its carved book

柳 富 鉉(Yoo, Boo-Hyun)**

<目 次>

- | | |
|-----------------------------|------------------------|
| I. 緒言 | 1. 湖林博物館 收藏의 『初雕大藏經』 |
| II.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既存說 | 2. 『校正別錄』에 언급된 『新雕大藏經』 |
| III. 『趙城金藏』과의 對照를 통한 分析 | IV. 結言 |

초 록

본고는 『高麗大藏經』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첫째 51권에 달하는 湖林博物館에 收藏된 『初雕大藏經』과 이에 해당되는 『新雕大藏經』 즉 再雕大藏經은 『開寶藏』의 覆刻本 또는 修訂覆刻本인 것으로 구명되었다. 둘째 守其法師가 『新조대장경』을 교감하여 조조할 때에 이용한 底本과 對校本에 대해 그 대략적인 것을 도출하였다. 즉 수기법사는 國本·丹本·宋本 가운데 대부분 宋本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은 다음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대교하고, 國本·丹本 등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신조대장경』을 간행함에 있어 그 板刻의 저본 즉 登梓本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宋本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經典은 國本이나 丹本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登梓本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신조대장경』에 編入시키거나 代替시켰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고려대장경, 초조대장경, 신조대장경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o prove the character of the bottom book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its carved book. From the research, it is proved that the First Tripitaka 51books and the new Tripitaka that is the second Tripitaka, collected in the Holim museum, are the overturn carved books or the corrected overturn carved books of 'Tripitaka keybo'. And finds out some outline on the bottom and compared book used when published the new Tripitaka by comparing it by Sugi Buddhist priest: he published the new book using the Songbon(宋本) at first as the bottom book and compared it with the Kookbon(國本) and Danbon(丹本) and corrected it based on them. This corrected Songbon was used once more as the bottom book of the new Tripitaka. And It is grasped that some Tripitaka containing some serious mistakes and missed in Songbon was corrected based on the Kookbon and Danbon and carved it, or made a new carved book to insert or substitute it to the new Tripitaka. study researches So this study concludes that such differences showing in these two books are on the bases of the gaps in time and space between them.

Key Words : Tripitaka Koreana, first Tripitaka, new Tripitaka

* 이 論文은 2001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副教授(boohyun@road.daejin.ac.kr)

· 접수일 : 2001. 7. 24 · 최초심사일 : 2001. 8. 1 · 최종심사일 : 2001. 8. 30

I. 緒 言

불교와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佛經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불경은 이른바 大藏經을 중심으로 膾炙되고 있다. 이러한 대장경은 北宋 이전에는 寫本 대장경으로 전해지다가 北宋 開寶年間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刊本 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역대로 대장경을 간행하게 되지만 현재 완전하게 전존되고 있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다. 더욱이 『開寶藏』을 비롯한 北宋의 대장경들은 거의 인멸되었고 殘卷만이 各處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개보장』을 祖本으로 해서 간행된 고려 『신조대장경』이 그 板本까지 현전되고 있어 세계 불교계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려 『신조대장경』은 물론이고 고려 『초조대장경』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하였다. 특히 『고려대장경』의 所從來를 알 수 있는 고려 대장경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치되는 주장과 애매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려대장경』의 소종래가 분명해질 때 『고려대장경』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종래의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趙城金藏』¹⁾을 중심으로 湖林博物館所藏 『초조대장경』 및 동국대학교에서 영인한 『신조대장경』과의 대조, 그리고 守其法師가 편찬한 『교정별록』의 校勘記와 이 교감기에서 언급되었던 『신조대장경』과 『趙城金藏』의 대조를 통해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대장경 간에 나타나는 본문의 文字異同에 있어서 그 先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자이동의 원인과 유래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불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할 것이고, 개별적인 經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1) 이 『趙城金藏』은 1149년(皇統 9年, 南宋의 紹興 19年)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大定 13年, 南宋의 乾道 9年)에 완성된 것으로, 『開寶藏』의 覆刻本으로 두루 알려진 것이다.

II.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既存說

『고려대장경』은 『初雕大藏經』과 『新雕大藏經』(이른바 ‘再雕大藏經’)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신조대장경』은 그 板木까지도 海印寺에 남아 있지만, 『초조대장경』은 현재 印本の 일부만이 전존되고 있다. 이들 『초조대장경』과 『신조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논급되어 왔으며, 분명하게 피력된 것도 定說로 인정받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일단 기존에 발표된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日本의 小野玄妙는 『佛書解説大辭典』에서 “北宋官版覆刻『高麗大藏經』目錄”이란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여, 『초조대장경』을 『개보장』의 복각본으로 주장하였으나 『신조대장경』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新雕에 있어서는 國前本・國後本, 宋本, 丹本 등으로 校正하고, 동시에 재삼 보충도 하고, 또 대체도 하고 있다. … 나는 새로 발견된 南禪寺大藏 가운데 初雕本 零本인 大集經을 보니 그것은 바로 北宋官版의 覆刻이었다. 字詰, 行數, 版心の 높이까지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字體의 氣韻까지 그것과 髣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에 있어서는 雕版大藏으로서는 단지 北宋官版 一藏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각되었다고 하면 그것의 底本이 되었음에 이상함은 없다.”²⁾

中國의 『中華大藏經』編輯局은 『中華大藏經』「內容簡介」에서 “『高麗藏』(筆者註: 『新雕大藏經』을 지칭하는 것임)은 『趙城金藏』과 같이 『開寶藏』계통의 覆刻本으로 版式이 완전히 일치한다. 『高麗藏』으로 『趙城金藏』을 補充하면 「天衣無縫」이라 할 만하다.”³⁾고 하여, 『신조대장경』을 『개보장』의 복각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李箕永 선생이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여 『초조대장경』(顯宗朝에 雕造된 것)은 『開寶藏』의 복각본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신조대장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守其法師가 『開寶藏』, 契丹本, 初雕本을 대고 하여 수정한 다음 새로 登梓本을 만들어 판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북송의 官版大藏經이 成立하자 제일 먼저 그 뒤를 이어 大藏經雕造를 발원하고 이를 推進, 두 번째로 完璧한 大藏經을 낸 것이 高麗의 顯宗(1010-1031)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高麗大藏經』 初雕本이라고 부른다. … 이 初雕『高麗大藏經』은 大體로 宋의 官版大藏經의 內容과 體裁를 上臺로 그것을 覆刻

2)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p.703-705.

3)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別紙, “『中華大藏經』內容簡介”, 1984, p.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2권 제 3호)

한 것으로 생각되나 高麗人들은 이에 滿足하지 않고 보다 完璧한 大藏經을 만들려는 遠大한 뜻을 품고 그 事業을 계속해 갔다. 그리하여 이 初雕本の 補完作業은 顯宗以後에도 계속되었다.…… 開泰寺의 僧統 守其는 北宋官版과 契丹本 및 우리의 初雕本을 널리 대교하여 誤謬를 訂正하는 經文校勘의 任務를 成功的으로 遂行하였다. ……『고려대장경』을 누가 썼는지, 한 사람이 썼는지 또는 여러 사람이 썼는지도 分明치는 않다. 그러나 본 影印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필치는 雄勁하며 端正하여 始終-貫 흐트러진 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⁴⁾

한편 千惠鳳 선생은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査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논급하여, 『초조대장경』은 『開寶藏』, 契丹藏, 貞元入藏諸經論, 宋新譯經論, 國內傳本 등을 수용하였으므로 등재본을 마련하여 판각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신조대장경』은 대부분 『초조대장경』의 본문을 수정한 다음 이를 복각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初雕大藏經』은 北宋開寶勅板大藏經 契丹大藏經 貞元入藏諸經論 宋新譯經論 및 國內傳本을 板刻受容하였다함은 이미 위에서 言及하였거니와, 그 開版에 있어서는 北宋開寶勅板의 每行14字形式에 準據, 板下書를 마련하여 새겨냈는데, 그 板刻技法이 아주 精한 편이어서 字體가 整然하고 字劃에 適勁方正한 筆力을 잘 살리고 있다. 물론 기술이 서툰 刻手가 새긴 것도 部分的으로 섞여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技法이 능숙하다. 특히 各行 17字의 契丹本과 國內傳本에 의거 새긴 판본을 볼 때 그 技法이 뛰어나고 있음을 첫눈으로 깨달을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그 板刻의 精巧度는 宋本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 한편 再雕大藏經은 底本の 本文 補足이 많거나 그 底本에 缺落이 생긴 것 등은 새로 補寫 또는 板下書를 작성하여 새기기도 했지만, 大部分은 『初雕大藏經』 本文의 誤脫을 바로 잡은 다음, 뒤집어 붙이고 거듭 새겨낸 것이기 때문에 板刻의 精巧度는 初雕本보다 훨씬 떨어진다.”⁵⁾

또한 채상식은 『한글대장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解題」에서 아래와 같은 해제를 첨부하여 『초조대장경』은 국내에 전하던 불경들과 상호 교감하거나, 부분적으로 고려에만 잔존하던 불경들을 새로이 입장하여 완성한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기도 하였다.

“종래에 일본측 학자들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도 없이 초조장경은 단지 북송의 개보칙판장경의 복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정별록』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초조장경은 국내에 전해 오던 많은 사본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에만 잔존하던 경전을 入藏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어떻게 『교정별록』에 의해 초조장경은 단순히 북송의 장경을 복각한 것이 아니라 근70여 년에 걸쳐 국내에 전하던 불경들과 상호 교감하거나, 부분적으로 고려에만 잔존하던 불경들을 새로이 입장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⁶⁾

4)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pp.5-11.

5)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査研究』, 서울,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p.15.

6) 東國譯經院, 『한글대장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1994. p. 17.

Ⅲ. 『趙城金藏』과의 對照를 통한 分析

앞장에서 살펴본것듯이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는 서로 상치되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그렇다치고 『신조대장경』은 『신조대장경』을 조조할 때의 교감 기록인 『校正別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 애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기에서는 『趙城金藏』과 호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 그리고 『신조대장경』을 대조하여 『초조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에 관해 논급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말하는 『조성금장』이라는 것은 1149년(皇統 9年, 南宋의 紹興 19年)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大定 13年, 南宋의 乾道 9年)에 완성된 것이다.⁷⁾ 이 대장경은 『開寶藏』의 覆刻本인데, 裝訂은 卷軸裝이며, 每版 23行, 每行 14字로서 『개보장』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성금장』에 수록된 경전은 거의 7,000 餘卷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380 여권이다. 이 『趙城金藏』은 현재 4種의 印本이 남아 있으며 『中華大藏經』⁸⁾에 그 주된 底本으로서 影印·수록되어 있다. 이 4종의 인본은 즉 山西省 趙城縣 廣勝寺에서 발견된 『廣勝寺本』 4,827권, 원래 燕京의 大寶集寺에 收藏되어 있다가 西藏의 薩迦北寺에서 발견된 『大寶集寺本』 540권, 그리고 『광승사본』에 섞여 있는 『興國院本』과 『天寧寺本』 등인데 모두 天寧寺에서 初雕된 인본이다.⁹⁾

이러한 『조성금장』이 『개보장』의 복각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일찍부터 학계의 통설이었다.¹⁰⁾ 필자 역시 2001년 1월에 中國國家圖書館을 방문하여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보장』 雜阿含經卷第三十·雜阿含經卷第三十九를 『조성금장』(『중화대장경』에 수록된 축쇄 영인본)의 그것과 대조를 해본 바, 『조성금장』이 『개보장』의 복각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호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高麗 顯宗 2년(1011)부터 宣宗 4年(1087)까지 雕造된 대장경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현재 財團法人 成保

7)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28.

8) 『중화대장경』은 중국의 中華書局에서 1984년부터 1995년까지 년차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 대장경은 기본적으로는 『趙城金藏』을 저본으로 하고, 『趙城金藏』의 결본과 未入藏된 것은 高麗 『新雕大藏經』과 여타의 대장경으로 보충한 것으로 총 106책에 달하는 巨帙의 대장경이다.

9)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別紙, “『中華大藏經』 內容簡介”, 1984, pp.4-6.

10) 內學院編, 『麗藏新雕本校記』, 南京, 1933(吳龍燮의 “高麗國新雕校正別錄 研究”(書誌學會, 『書誌學研究』 創刊號, 1986. p.220)에서 再引用).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728.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p.7

文化財團 傘下 호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77권의 『초조대장경』이다. 이 77권의 대장경에 대해서는 1988년 호림박물관소장 『초조대장경』 板本에 대한 연구조사 用役에 따라 당시 成均館大學校 千惠鳳 教授와 文化財管理局 朴相國 專門委員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인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¹¹⁾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77권 各卷의 卷首 혹은 卷末의 사진 圖版이 1장씩 실려 있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概說과 각각에 대한 解說과 『新雕大藏經』과의 文字異同 對校表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조대장경』이란 것은 高麗 高宗 23年(1236)부터 38年(1251)까지 雕造되어 그 판목이 현재까지 海印寺에 남아 있는 이른바 ‘再雕大藏經’으로서 1957년부터 1976년까지 東國大學校에서 영인 배포한 것이다.

1. 湖林博物館 收藏의 『初雕大藏經』

호림박물관 수장의 『초조대장경』과 『趙城金藏』 그리고 『신조대장경』을 대조하기에 앞서 먼저 호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 77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陰影으로 처리된 것은 이 經典이 『趙城金藏』에는 缺失되어 대조할 수 없는 것임).

湖林博物館 收藏의 『初雕大藏經』

- | | |
|---------------------|------------------------|
| 1. 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四百八十一 | 40.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三十三 |
| 2. 摩訶般若波羅蜜經 卷第十六 | 41. 四分律 卷第五 |
| 3. 摩訶般若波羅蜜經 卷第二十四 | 42. 四分律 卷第八 |
| 4. 大寶積經 卷第九十一 | 43. 彌沙塞戒 |
| 5. 大方等大集經 卷第二十五 | 44. 東塔僧羯磨 卷下 |
| 6. 大哀經 卷第五 | 45. 佛說優婆塞五戒相經 |
| 7.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 | 46.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 |
| 8.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七十五 | 47. 薩婆多毗尼毗婆沙 卷第一 |
| 9. 大般涅槃經 卷第三十七 | 48. 薩婆多毗尼毗婆沙 卷第六 |
| 10. 大般涅槃經 卷第三十八 | 49.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十六 |
| 11. 方廣大莊嚴經 卷第八 | 50. 阿毗曇八捷度論 卷第二十四 |
| 12. 合部金光明經 卷第二 | 51. 阿毗達磨法蘊足論 卷第八 |
| 13. 月燈三昧經 卷第十 | 52. 阿毗達磨法蘊足論 卷第十二 |
| 14. 大莊嚴法門經 卷下 | 53. 阿毗達磨識身足論 卷第十二 |
| 15. 舍利弗阿闍世經 | 54. 阿毗達磨識身足論 卷第十三 |
| 16. 大法炬陀羅尼經 卷第十九 | 55. 阿毗達磨品類足論 卷第十六 |
| 17. 僧伽吒經 卷第四 | 56. 衆事分阿毗曇論 卷第二 |
| 18. 佛說法集經 卷第一 | 57.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一 |
| 19. 無所有菩薩經 卷第一 | 58.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六 |

11)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서울,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 | | |
|------------------------|----------------------------|
| 20. 大智度論 卷第一 | 59.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七 |
| 21. 大智度論 卷第十 | 60.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九十九 |
| 22. 金剛般若論 卷下 | 61.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一百七十二 |
| 23. 瑜伽師地論 卷第三 | 62.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十二 |
| 24. 瑜伽師地論 卷第八十九 | 63.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十五 |
| 25. 王法正理論 一卷 | 64. 阿毗達磨俱舍論 卷第二十一 |
| 26. 攝大乘論釋論 卷第五 | 65. 說一切有部順正理論 卷第四 |
| 27. 攝大乘論釋論 卷第十 | 66. 撰集百緣經 卷第九 |
| 28. 大乘廣五蘊論 | 67. 雜寶藏經 卷第三 |
| 29. 入大乘論 卷上 | 68. 經律異相 卷第六 |
| 30. 佛說七處三觀經 | 69. 開元釋教錄 卷第八 |
| 31. 餓鬼報應經 | 70. 廣弘明集 卷第二十一 |
| 32. 王法念處經 卷第四十九 | 71. 比丘尼傳 卷第二 |
| 33. 佛本行集經 卷第二十五 | 72. 大乘舍婆提摩經 |
| 34. 本事經 卷第七 | 73. 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 卷第六 |
| 35. 佛說末羅王經 | 74. 佛說大吉祥天女十二名號經 |
| 36. 辯意長者子經 | 75. 佛母大孔雀明王經 卷上 |
| 37. 摩訶僧祇律 卷第十五 | 76. 佛說十地經 卷第二 |
| 38.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卷第四十九 | 77. 法苑珠林 卷第八十二 |
| 39.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二十三 | |

이제 77권의 호림박물관 수장의 『초조대장경』 가운데 『趙城金藏』에 缺失되어 대조할 수 없는 22권(위에서 陰影으로 처리된 經典)을 제외한 55권의 경전들을 『趙城金藏』 및 『신조대장경』과 대조해본 바(附錄의 圖版 ①~⑩을 참조바람. 단 紙面 관계상 그 일부만을 수록한 것임), 4권의 경전(7.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 · 41.四分律 卷第五 · 74.佛說大吉祥天女十二名號經 · 75.佛母大孔雀明王經卷上)¹²⁾을 제외한 51권의 경전들은 各本이 行字數, 字形, 글자의 크기, 글자 사이의 간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즉 모두 동일한 계통의 板本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성금장』은 『개보장』의 복각본인데, 『초조대장경』과 『신조대장경』이 『개보장』의 복각본인 『조성금장』과 똑같다는 것은 『초조대장경』과 『신조대장경』역시 『개보장』의 복각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51권에 해당되는 『초조대장경』·『조성금장』·『신조대장경』은 모두 이른바 宋本인 『開寶藏』을 저본으로 복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板本이 板式이나 原文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요소 즉 板首題·板尾題¹³⁾ 行字數, 張次, 卷首事項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12) 위에서 언급된 4권의 경전 가운데 7.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는 『신조대장경』만이 異本인데 『신조대장경』에서 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하면서 改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41.四分律 卷第五, 74.佛說大吉祥天女十二名號經, 75.佛母大孔雀明王經 卷上은 『趙城金藏』만이 異版本인데, 『趙城金藏』의 四分律 卷第五의 卷末에 있는 “宣差大名府路達魯花赤納濟蒙古提舉補修雕造”라는 補修記를 통해 볼 때 이것은 『趙城金藏』이 이후 補修되는 과정에서 改刻된 것으로 보인다.

13) 여기에서 말하는 板首題·板尾題는 ‘經典名’, ‘張次’, ‘函次’ 등이 각 張(板)의 板首 혹은 板尾 부분에 기재

原文에서도 다소의 文字異同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개보장』의 복각본이 틀림없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이 세 판본이 각각 다른 『개보장』의 복각본 즉 각각 다르게 수정된 『개보장』의 복각본이거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개보장』에 나름대로의 교감과 수정을 가한 다음 수정된 각각의 『개보장』을 登梓本으로 삼아 복각된 것으로 이해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초조대장경』 51권과 이에 해당되는 『신조대장경』은 『개보장』의 복각본 또는 修訂覆刻本으로 짐작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2. 『校正別錄』에 언급된 『新雕大藏經』

『趙城金藏』과 『교정별록』에 언급된 『신조대장경』을 대조하기에 앞서 먼저 『교정별록』에 수록된 校勘記 78件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陰影으로 처리된 것은 이 校勘記에 해당되는 經典이 『趙城金藏』에는 缺本이거나 未入藏되어 없는 것임).

『校正別錄』의 校勘記

- | | |
|----------------------------------|---------------------------|
| 1. 服函 決定毗尼經 | 40. 止函 佛說頻毗娑羅詣佛供養經 |
| 2. 服函 須摩提經 | 41. 若函 舍衛國王十夢經 |
| 3. 推函 大集經 | 42. 若函 四未曾有經 一卷 |
| 4. 虞函 大集經 第五十九卷 | 43. 籍函 本事經 第三卷 |
| 5. 伐函 般舟三昧經 三卷 | 44. 甚函 大安般守意經 二卷 |
| 6. 鳳函 正法華經 十卷 | 45. 竟函 受新歲經 |
| 7. 王函 普曜經八卷 第二卷 | 46. 竟函 護淨經 |
| 8.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¹⁴⁾ | 47. 攝函 十誦律 卷第五 |
| 9.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¹⁵⁾ | 48. 樂函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那耶 卷第二十 |
| 10. 養函 佛說彌勒下生經 ¹⁶⁾ | 49. 隨函 彌沙塞五分戒本 |
| 11.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¹⁷⁾ | 50. 隨函 摩訶僧祇比丘尼戒本 |
| 12. 敢函 佛說申日經 | 51. 外函 沙彌尼離戒文 |
| 13. 才函 六字神呪經 | 5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一卷 |
| 14. 知函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¹⁸⁾ | 53. 入函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一卷 |
| 15.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¹⁹⁾ | 54. 諸函 鼻奈耶 十卷 |

된 題記이다.

- 14)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宋沙門先公譚今十三紙
 15)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宋沙門先公譚國宋藏本二十六紙
 16) 養函 佛說彌勒下生經 竺法護譯
 17)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 宋無丹有今還收入藏
 18) 知函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屠那崛多譯
 19)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丹本 屠那崛多譯

16. 必函 須眞天子經 宋四卷 丹三卷
17. 罔函 賢劫經八卷
18.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三卷
19. 羔函 摩逆經
20. 作函 大智度論 第四卷
21. 聖函 大智度論 第十四卷
22. 建函 大智度論 第三十一卷
23. 谷函 大寶積經論 四卷
24. 曰函 攝大乘論釋 卷第九
25. 當函 決定藏論
26. 竭函 寶性論 第二卷
27. 力函 轉識論
28. 命函 法界無差別論 一卷²⁰⁾
29. 命函 國本宋本 法界無差別論
30.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一
31.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五
32. 松函 雜阿含經 第四卷
33. 川函 雜阿含經 第三十四卷
34. 不函 別譯雜阿含經
35. 澄函 起世經²²⁾
36. 取函 起世因本經²³⁾
37. 咲函 大樓炭經 卷第一
38. 咲函 中本起經 卷下
39. 容函 受歲經
55.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六
56.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八
57. 孔函 發智論 第八卷
58.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
59. 分函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四
60. 慈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十四
61. 側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三十二
62. 弗函 大毗婆沙論 卷第六十五
63. 廉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
64.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十九
65.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二百
66. 渭函 分別功德論 第五卷
67. 渭函 十八部論
68. 觀函 菩薩本緣經 卷上
69. 驚函 雜寶藏經 卷第五
70. 盡函 金七十論 三卷
71. 右函 神州三寶感通錄 三卷
72. 既函 辨正論 第七卷
73. 佐函 一字頂輪王經 第一卷²¹⁾
74. 孰函 佛說木槌經
75.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卷第十三
76. 廻漢函²⁴⁾
77. 俊父密函²⁵⁾
78. 寧晉楚函 佛名經 三十卷

위 78 件的 校勘記에 언급된 『신조대장경』 가운데 『趙城金藏』에는 결본이거나 未入藏되어 대조할 수 없는 35 件을 제외하면 대조가 가능한 것은 43 件이다. 이 43 件的 校勘記에 해당되는 『신조대장경』을 『趙城金藏』과 대조해 본 바(紙面 관계상 全體의 圖版은 생략함), 3 件에 해당되는 經典(19.羔函 摩逆經, 40.止函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 74.孰函 佛說木槌經)²⁶⁾을 제외한 40 件的 교감기에 해당되는 경전의 『신조대장경』은 역시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開寶藏』을 저본으로 즉 『개보장』을 登梓本으로 삼아서 복각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신조대장경』은 『개보장』을 복각한 것은 틀림없지만, 완전히 똑같이 『개보장』을 복각한 것이 아니라 『개보장』을 수정한 다음 이 수정된 『개보장』을 登梓本으로 해서

20) 命函 法界無差別論 一卷(丹本)

21) 此則國本 宋本未見

22) 澄函 國宋藏云 起世經 屠那崛多共達摩笈多等譯 丹藏則云 屠那崛多譯

23) 取函 國宋藏云 起世因本經 屠那崛多譯 丹藏則云 達摩笈多譯

24) 廻漢函(佛名經十八卷을 삭제하고 摩訶衍論十卷과 玄文論二十卷을 編入)

25) 俊父密函(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을 삭제하고 校正別錄三十卷을 編入)

26) 여기에서 언급된 3 件的 경전 가운데 19.羔函의 摩逆經과 40.止函의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은 『신조대장경』의 간행시 丹本으로 대체되어 改刻된 것이고, 74.孰函의 佛說木槌經은 『신조대장경』의 간행시 삭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경전이 『조성금장』에는 있지만 對照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복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우리는 『교정별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교정별록』의 교감 내용을 분석하여 守其法師가 『신조대장경』을 교감하여 조조할 때에 이용한 이른바 國本, 宋本, 丹本 가운데 어떤 판본을 ‘底本’으로 사용하고, 어떤 판본을 ‘對校本’으로 사용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사실 이 저본과 대교본에 대해서 『교정별록』에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하게 이해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底本’이란 것은 守其法師가 國本, 宋本, 丹本을 가지고 대장경을 교감할 때에 교감을 가했던 판본이고 또한 『신조대장경』의 板刻시 복각의 저본이 된 것을 의미하며, ‘對校本’이란 것은 교감을 가할 때에 참고가 된 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교정별록』의 교감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校正別錄』의 유형별 분석

- A. 國丹本, 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거 宋本을 수정 ----- 23 件²⁷⁾
 B. 國宋本을 취함 ----- 2 件²⁸⁾
 C. 문제점 지적, 書名·譯者名 수정, 國宋本·丹本을 존속시킴, 重編의 원인 분석 ---- 18 件²⁹⁾
 D. 宋丹本 가운데 丹本을 不取함 ----- 1 件³⁰⁾
 E. 三國本の 闕文을 本論에 의거 補入 ----- 1 件³¹⁾

- | | |
|-------------------------------------|-----------------------------|
| 27) 1. 服函 決定毗尼經 | 33. 川函 雜阿含經 第三十四卷 |
| 5. 伐函 般若三昧經 三卷 | 38. 喚函 中本起經 卷下 |
| 6. 鳳函 正法華經 十卷 | 53. 入函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一卷 |
| 7. 王函 普曜經八卷 第二卷 | 54. 諸函 鼻奈耶 十卷 |
| 20. 作函 大智度論 第四卷 | 56.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八 |
| 21. 聖函 大智度論 第十四卷 | 58.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A·F에 해당됨) |
| 22. 建函 大智度論 第三十一卷 | 60. 慈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十四 |
| 23. 谷函 大寶積經論 四卷 | 63. 廉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 |
| 25. 當函 決定藏論 | 64.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一百九十九 |
| 26. 竭函 實性論 第二卷 | 65. 逸函 大毗婆沙論 卷第二百 |
| 27. 力函 轉識論 | |
| 28) 2. 服函 須摩提經 | 3. 推函 大集經 |
| 29) 9.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 36. 取函 起世因本經 |
| 10. 養函 佛說彌勒下生經 | 41. 若函 舍衛國王十夢經 |
| 12. 敢函 佛說申日經 | 44. 甚函 大安般守意經 二卷 |
| 14. 知函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 | 51. 外函 沙彌尼離戒文 |
| 17. 罔函 賢劫經 八卷 | 57. 孔函 發智論 第八卷 |
| 18.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三卷 | 59. 分函 阿毗曇毗婆沙論 卷第十四 |
| 28. 命函 法界無差別論 一卷 | 66. 渭函 分別功德論 第五卷 |
| 29. 命函 國本宋本 法界無差別論 | 70. 盡函 金七十論 三卷 |
| 35. 澄函 起世經 | 78. 寧晉楚函 佛名經 三十卷 |
| 30) 16. 必函 須真天子經 宋四卷 丹三卷 (D·N에 해당됨) | |

F. 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수정	12 件 ³²⁾
G. 明度經에 의거 國宋本을 수정	1 件 ³³⁾
H. 國宋本을 丹本으로 대체	5 件 ³⁴⁾
I. 宋本에 없는 것을 丹本에 의거 編入	3 件 ³⁵⁾
J. 重出, 重編 이유로 國宋本을 삭제, 看覽藏經에 無益하여 삭제	4 件 ³⁶⁾
K. 宋本을 國丹本으로 대체	1 件 ³⁷⁾
L. 國本에 의거 宋丹本 혹은 宋本을 수정(脫文 補入 등)	2 件 ³⁸⁾
M. 函次移動	1 件 ³⁹⁾
N. 丹本の 誤謬를 지적(闕文, 錯亂)	5 件 ⁴⁰⁾
O. 國後本·丹本에 의거 國前本·宋本을 수정	1 件 ⁴¹⁾
P. 出處未詳의 經典을 編入	1 件 ⁴²⁾
Q. 校正別錄을 編入	1 件 ⁴³⁾
R. 丹本에 의거 國本을 수정	1 件 ⁴⁴⁾

-
- 31) 24. 曰函 攝大乘論釋 卷第九
32) 30.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一
31. 薄函 中阿含經 卷第十五
32. 松函 雜阿含經 第四卷
34. 不函 別譯雜阿含經
47. 攝函 十誦律 卷第五
48. 樂函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那耶
33) 4. 虞函 大集經第五十九卷
34) 8. 鞠函 月燈三昧經 一卷 宋沙門先公譯
40. 止函 佛說頻毗娑羅詣佛供養經
42. 若函 四未曾有經 一卷
35) 11.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15.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36) 13. 才函 六字神呪經
74. 敦函 佛說木槵經
37) 19. 羔函 摩訶經
38) 37. 映函 大樓炭經 卷第一
39) 45. 竟函 受新歲經(容函에서 移動)
40) 2. 服函 須摩提經(B·N에 해당됨)
16. 必函 須眞天子經(D·N에 해당됨)
46. 竟函 護淨經
41) 75.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卷第十三
42) 76. 廻漢函(J·P에 해당됨)(佛名經十八卷을 삭제하고 摩訶衍論 十卷과 玄文論 二十卷을 編入)
43) 77. 俊父密函(J·R에 해당됨)(一切經源品次錄 三十卷을 삭제하고 『校正別錄』 三十卷을 編入)
44) 73. 佐函 一字頂輪王經第一卷 此則國本 宋本未見
50. 隨函 摩訶僧祇比丘尼戒本
5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一卷
55.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卷第六
58. 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A·F에 해당됨)
61. 側函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第三十二
62. 弗函 大毗婆沙論 卷第六十五卷第二十
43. 籍函 本事經 第三卷
49. 隨函 彌沙塞五分戒本
39. 容函 受歲經
76. 廻漢函(J·P에 해당됨)
77. 俊父密函(J·Q에 해당됨)
67. 渭函 十八部論
68. 觀函 菩薩本緣經 卷上
69. 驚函 雜寶藏經 卷第五

다음으로 『조성금장』과 『신조대장경』에 모두 있는 경전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교정별록』의 교감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즉 위에서 기술한 교감 유형에 보이듯이 교감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A.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수정한다”, “B.國宋本을 취한다”, “D.宋丹本 가운데 丹本을 不取한다(이것은 宋本을 취한다는 의미로 생각됨)”, “E.三國本の 闕文을 本論에 의거 補入한다”, “F.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수정한다”, “R.丹本에 의거 國本을 수정한다” 등의 교감내용에 근거하여 『신조대장경』과 『조성금장』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A.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수정한다”는 것은 國丹本(또는 二本, 東北二本, 他本)에 의해 宋本을 수정하여 이를 복각한 것이다.(단 7.王函 普耀經八卷 第二卷은 예외적으로 『趙城金藏』과 『新雕大藏經』이 각각 다른 版本인데 아마도 『조성금장』은 뒤에 改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한가지 例證으로 『조성금장』과 『신조대장경』의 “1.服函의 決定毗尼經”의 第2張을 대조해 보면(圖版① 참조), 『개보장』의 복각본인 『조성금장』과 『신조대장경』이 전체적으로는 모두 일치하고 한 곳만 다르게 나타난다.(제2장, 제14행, 10·11字인 “妙意”가 『신조대장경』에는 “妙意^{丹云}”인데, 『조성금장』에는 “妙音”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決定毗尼經의 제2장이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 경전에 해당하는 『신조대장경』의 저본이 된 宋本과 『趙城金藏』의 저본인 『개보장』과 같은 계통의 『개보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조대장경』은 『조성금장』의 저본과 같은 계통의 『개보장』을 복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조대장경』 決定毗尼經의 제2장, 제14행, 10·11字인 “妙意” 아래에 “^{丹云}妙音”이란 註釋이 달려 있는 것은 물론 守其法師가 丹本에 의거해서 宋本에 더해놓은 것으로 바로 수기법사에 의해서 수정된 부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금장』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 “妙意”가 이미 “妙音”으로 수정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妙意”로 되어 있던 것이 “妙音”으로 수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신조대장경』의 저본인 송본에는 “妙意”로 되어 있다가 『조성금장』의 저본인 송본에서는 “妙音”으로 수정되었고, 丹本은 “妙意”가 “妙音”으로 수정된 송본이 수용되어 “妙音”으로 된 것이다. 아마도 『조성금장』의 저본이 된 송본은 『개보장』의 수정본이고, 『신조대장경』의 저본이 된 송본은 『개보장』 가운데 그 初本이 아닌가 한다.

② “B.國宋本을 취한다”는 것은 國宋本을 복각한 것이다. 단, 이같이 國宋本을 지칭하는 경우 板刻時에는 國宋本 가운데 어느 하나를 底本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송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국본을 복각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 국본은 이전에 송본을 복각한 국본인

셈이다(이하 동일함). 왜냐하면 이 경우 즉 “B.國宋本을 취함”의 유형에 해당되는 『신조대장경』 역시 『조성금장』과 行字數, 字形, 글자의 크기, 글자 사이의 간격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2.服函 須摩提經”의 제1장을 든다(圖版⑫ 참조).

③ “D.宋丹本 가운데 丹本을 不取한다”는 것은 宋丹本 가운데 宋本을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16.必函 須眞天子經”의 제1장을 든다(圖版⑬ 참조). 그런데 도판을 자세히 보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는 다르고 제11행이후부터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성금장』의 “大比丘衆”(제5행)과 “文殊師利”(제10행)가 『신조대장경』에는 “大衆”과 “文殊師利童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성금장』의 저본인 송본에 “大比丘衆”·“文殊師利”로 되어 있던 것이 『신조대장경』의 저본인 송본에 와서는 “大衆”과 “文殊師利童子”로 바뀐 文字異同(이 문자이동은 潤文으로 이해됨)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신조대장경』에서 말한 송본은 『조성금장』의 저본이 된 송본보다 이후에 수정된 송본으로 추정된다 하겠다(以下에서 이와 같은 분석은 論外로 하고자 한다). 어떻든 이 『신조대장경』의 須眞天子經이 『조성금장』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송본을 복각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④ “E.三國本の 闕文⁴⁵⁾을 本論⁴⁶⁾에 의거 補入한다”는 것은 三國本の ‘攝大乘論釋’ 卷第九에서 발생한 闕文을 本論인 ‘攝大乘論’ 中卷에 의거해서 宋本에 補入하여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24.曰函 攝大乘論釋 卷第九”의 제9장을 든다(圖版⑭ 참조). 『교정별록』의 교감기에서는 攝大乘論釋 卷第九 제9장 13행에서의 闕文 25자를 攝大乘論 中卷 第24幅⁴⁷⁾에 의거하여 보입한다고 하였는데, 『신조대장경』과 『조성금장』을 대조한 바 과연 그대로이다.

⑤ “F.丹本에 의거 國宋本을 수정한다”는 것은 丹本에 의거해서 國宋本(정확히 말하면 宋本)을 수정하여 복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는 “58.同函 集異門足論 卷第十四”의 제12장~제14장을 든다(圖版⑮ 참조). 『교정별록』의 교감기에서는 國宋本 集異門足論 卷第十四 제12쪽 6행(필자가 확인한 바로 『신조대장경』의 ‘集異門足論’ 卷第十四에는 제18행에 해당한다) 이하의 闕文 35행을 丹本에 의거하여 보입한다고 하였는데, 『신조대장경』과 『조성금장』을 대조한 바 또한 그대로이다. 즉 『신조대장경』의 제12장 18행부터 제14장 6행까지는 丹本에 의거해 補入된 부분이고(補入된 부분은 당연히 『신조대장경』의 雕造時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된 것이다), 제12장의 17행까지와 제14장의 7행이하의 내용은 송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이다(복각된 부분은 송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⑥ “R.丹本에 의거 國本을 수정한다”는 것은 송본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丹本에 의거하여

45) 여기에서의 闕文은 ‘攝大乘論’을 풀어 놓은 ‘攝大乘論釋’에서 발생한 결문을 뜻하는 것이다.

46) 여기에서 本論이란 것은 ‘攝大乘論’을 지칭하는 것이다.

47) 이 내용은 필자가 확인한 바로 『신조대장경』의 ‘攝大乘論’에는 제22장에 있다.

國本을 수정한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73.佐函 一字頂輪王經” 1 件인데, 이 경전의 『趙城金藏』과 『新雕大藏經』을 대조해 보면 서로 異版本임을 알 수 있는데 『조성금장』은 『개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아마도 뒤에 改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國本の 저본과 판각에 대한 분석은 보류하고자 한다.

이외에 “N.丹本の 誤謬를 지적 (闕文, 錯亂)”, “C.문제점 지적, 書名·譯者名 수정, 國宋本·丹本을 존속시킴, 重編의 원인 분석” 등등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교감이 아니어서 『조성금장』과의 대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論外로 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守其法師가 『신조대장경』을 교감하여 조조할 때에 이용한 底本과 對校本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守其法師는 國本·丹本·宋本 가운데 대부분 宋本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고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대교하고, 國本·丹本 등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신조대장경』을 간행함에 있어 그 판각의 저본 즉 登梓本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宋本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經典은 國本이나 丹本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登梓本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신조대장경』에 編入시키거나 代替시켰던 것으로 파악된다.

IV. 結 言

본고는 『高麗大藏經』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한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金藏』을 중심으로 湖林博物館 收藏의 『初雕大藏經』 및 동국대학교에서 영인한 『新雕大藏經』과의 대조, 그리고 守其法師가 편찬한 『校正別錄』의 校勘記와 이 교감기에서 언급되었던 『신조대장경』과 『조성금장』의 대조를 통해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밝혔다.

그 결과 첫째 『조성금장』을 중심으로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초조대장경』, 그리고 『신조대장경』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서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77권의 『초조대장경』 가운데 세 板本과의 대조가 가능했던 51권의 『초조대장경』과 이에 해당되는 『신조대장경』은 『개보장』의 복각본 또는 修訂覆刻本인 것으로 구명되었다.

둘째 『교정별록』의 校勘記와 이 교감기에서 언급되었던 『신조대장경』과 『조성금장』의

대조 분석을 통해서 守其法師가 『신조대장경』을 교감하여 조조할 때에 이용한 底本과 對校本에 대해 그 대략적인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즉 守其法師는 國本·丹本·宋本 가운데 대부분 宋本을 제1차적인 저본으로 삼은 다음 이 宋本을 國本·丹本과 대교하고, 國本·丹本 등에 의거해서 宋本을 교감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이 수정된 송본은 바로 『신조대장경』을 간행함에 있어 그 판각의 저본 즉 登梓本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宋本에 없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經典은 國本이나 丹本 등을 제2차적인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여 登梓本으로 삼아 판각을 하거나, 새로 등재본을 마련해서 판각한 다음 『신조대장경』에 編入시키거나 代替시켰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대장경 간에 나타나는 본문의 文字異同에 있어서 그 先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자이동의 원인과 유래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불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려대장경』의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구명한 것이고, 개별적인 經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1995.
東國大學校, 『高麗大藏經』, 1976.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pp.703-705.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別紙, “『中華大藏經』 內容簡介”, 1984, p.5.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pp.5-11.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서울,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p.15.
東國譯經院, 『한글대장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1994, p. 17.
吳龍燮, “高麗國新雕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 書誌學會, 1986. p.220.

附 錄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및 『趙城金藏』 · 『新雕大藏經』”

(圖版에서 上段은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中段은 『趙城金藏』, 下段은 『新雕大藏經』임)

- 圖版 ① 9.大般涅槃經卷第三十七
- 圖版 ② 17.僧伽吒經卷第四
- 圖版 ③ 31.餓鬼報應經
- 圖版 ④ 34.本事經卷第七
- 圖版 ⑤ 37.摩訶僧祇律卷第十五
- 圖版 ⑥ 39.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卷第二十三
- 圖版 ⑦ 46.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一
- 圖版 ⑧ 51.阿毗達磨法蘊足論卷第八
- 圖版 ⑨ 66.撰集百緣經卷第九
- 圖版 ⑩ 77.法苑珠林卷第八十二

“『校正別錄』에 언급된 『新雕大藏經』과 『趙城金藏』”

(圖版에서 上段은 『趙城金藏』, 下段은 『新雕大藏經』임)

- 圖版 ⑪ 1.服函 決定毗尼經
- 圖版 ⑫ 2.服函 須摩提經
- 圖版 ⑬ 16.必函 須眞天子經
- 圖版 ⑭ 24.田函 攝大乘論釋卷第九
- 圖版 ⑮ 58.同函 集異門足論卷第十四

同版() 9 大般涅槃經卷第三十七

小火能焚衆生受身為苦所壞亦復如是善男子智者若能觀苦八種如聖行中當知是人能斷衆苦善男子智者深觀是八苦已次觀苦因苦因者即愛無明是愛元明則有二種一者求身二者求財求身求財二俱是苦是故當知愛元明者即是苦因善男子是愛無明則有二種一者內二者外內能作業外能增長又復內能作業外作業果斷內愛已業則得斷斷外愛已果則得斷內愛能生未來世若外愛能生現在世若智者觀愛即是苦因既觀因已次觀果報苦果報者即是取也愛果名取是取因緣即內外愛則有受苦善男子智者當觀愛因緣取因緣愛若我能斷愛取二事則不違棄受於衆苦是故智者為斷愛苦修八正道善男子若有入能如是觀者是則名為清淨梵行是名衆生毒身之中有妙藥王如雪山中雖有毒草亦有妙藥 大般涅槃經卷第三十七	小火能焚衆生受身為苦所壞亦復如是善男子智者若能觀苦八種如聖行中當知是人能斷衆苦善男子智者深觀是八苦已次觀苦因苦因者即愛無明是愛元明則有二種一者求身二者求財求身求財二俱是苦是故當知愛元明者即是苦因善男子是愛無明則有二種一者內二者外內能作業外能增長又復內能作業外作業果斷內愛已業則得斷斷外愛已果則得斷內愛能生未來世若外愛能生現在世若智者觀愛即是苦因既觀因已次觀果報苦果報者即是取也愛果名取是取因緣即內外愛則有受苦善男子智者當觀愛因緣取因緣愛若我能斷愛取二事則不違棄受於衆苦是故智者為斷愛苦修八正道善男子若有入能如是觀者是則名為清淨梵行是名衆生毒身之中有妙藥王如雪山中雖有毒草亦有妙藥 大般涅槃經卷第三十七	小火能焚衆生受身為苦所壞亦復如是善男子智者若能觀苦八種如聖行中當知是人能斷衆苦善男子智者深觀是八苦已次觀苦因苦因者即愛無明是愛元明則有二種一者求身二者求財求身求財二俱是苦是故當知愛元明者即是苦因善男子是愛無明則有二種一者內二者外內能作業外能增長又復內能作業外作業果斷內愛已業則得斷斷外愛已果則得斷內愛能生未來世若外愛能生現在世若智者觀愛即是苦因既觀因已次觀果報苦果報者即是取也愛果名取是取因緣即內外愛則有受苦善男子智者當觀愛因緣取因緣愛若我能斷愛取二事則不違棄受於衆苦是故智者為斷愛苦修八正道善男子若有入能如是觀者是則名為清淨梵行是名衆生毒身之中有妙藥王如雪山中雖有毒草亦有妙藥 大般涅槃經卷第三十七
--	--	--

圖 17. 僧伽經卷第四

僧伽經卷第四 今時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白佛 言世尊以何方便令諸眾生悉聞正 法佛告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言 善男子有諸眾生我欲生苦而不聽 受我苦病苦憂悲之苦然憫會苦受 別離苦死滅之苦藥上是名一切苦 時少眾生聞此法已令掌札佛白佛 言世尊我等亦有死耶佛告年少等 汝一切眾生亦歸於死彼少眾生白 佛言世尊云何死至佛言善男子臨 死之時滅行識風起識轉風起識相 應風起善男子是三種風臨死之時 動於行識彼少眾生白佛言世尊何 等三法臨死之時憫於身識佛言善 男子一者刀惱二者針惱三者杖惱 是三種風惱切其身彼少眾生白佛 言世尊何者是身佛言善男子身名 大聚身名燒然身名應礙身名勞堪 身名刺聚身名丘聚身名水泡身名 重擔身名生惱身名老病苦惱身名	僧伽經卷第四 今時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白佛 言世尊以何方便令諸眾生悉聞正 法佛告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言 善男子有諸眾生我欲生苦而不聽 受我苦病苦憂悲之苦然憫會苦受 別離苦死滅之苦藥上是名一切苦 時少眾生聞此法已令掌札佛白佛 言世尊我等亦有死耶佛告年少等 汝一切眾生亦歸於死彼少眾生白 佛言世尊云何死至佛言善男子臨 死之時滅行識風起識轉風起識相 應風起善男子是三種風臨死之時 動於行識彼少眾生白佛言世尊何 等三法臨死之時憫於身識佛言善 男子一者刀惱二者針惱三者杖惱 是三種風惱切其身彼少眾生白佛 言世尊何者是身佛言善男子身名 大聚身名燒然身名應礙身名勞堪 身名刺聚身名丘聚身名水泡身名 重擔身名生惱身名老病苦惱身名	僧伽經卷第四 今時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白佛 言世尊以何方便令諸眾生悉聞正 法佛告藥上菩提薩埵摩訶薩埵言 善男子有諸眾生我欲生苦而不聽 受我苦病苦憂悲之苦然憫會苦受 別離苦死滅之苦藥上是名一切苦 時少眾生聞此法已令掌札佛白佛 言世尊我等亦有死耶佛告年少等 汝一切眾生亦歸於死彼少眾生白 佛言世尊云何死至佛言善男子臨 死之時滅行識風起識轉風起識相 應風起善男子是三種風臨死之時 動於行識彼少眾生白佛言世尊何 等三法臨死之時憫於身識佛言善 男子一者刀惱二者針惱三者杖惱 是三種風惱切其身彼少眾生白佛 言世尊何者是身佛言善男子身名 大聚身名燒然身名應礙身名勞堪 身名刺聚身名丘聚身名水泡身名 重擔身名生惱身名老病苦惱身名
---	---	---

圖版 31. 鐵菴經

	鐵見報應經	用東晉錄 見
尊者大目犍連從佛在耆闍崛山中遊行恒水邊見諸餓鬼甚多受罪不同見尊者目連皆起敬心來問因緣一鬼問言我常苦頭痛不知何罪所致目連答言汝今受花報果在地獄一鬼問言我常瘡痛何罪所致答言汝為人時無有慈心焚燒山野殘害衆生今受花報果在地獄一鬼問言我身瘡爛不可堪忍何罪所致答言汝為人時喜燔脂羊今受花報果在地獄一鬼問言我食無足初不得飽何罪所致答言汝為人時雖飯衆生恒令不足今受花報果在地獄一鬼問言我常苦頭痛治之何藥何罪所致答言汝為人時不敬道德加以罵辱今受花報果在地獄一鬼問言我生男女皆端正可愛而皆早死念之斷絕何罪所致答言汝為人時見兒殺生助喜歡笑殺故促令壽故痛毒	鐵見報應經	失詳附東晉錄 思

圖版 ④ 34. 本事經卷第七

本事經卷第七 三法品第三之二 吾從世尊聞如是語慈藹當知於此 世間子有三種六何為三一者等子 二者勝子三者劣子六何等子謂有 一類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諸生 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 諸酒生放逸處子亦具戒成調善法 能離諸生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 誑語離飲諸酒生放逸處是名等子 六何勝子謂有一類父母具戒成諸 惡法樂行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 行虛誑語行飲諸酒生放逸處子能 持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與取 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生放 逸處是名勝子六何劣子謂有一類 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 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 生放逸處其子犯戒成諸惡法樂行 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行虛誑語 行飲諸酒生放逸處是名劣子如是	本事經卷第七 三法品第三之二 吾從世尊聞如是語慈藹當知於此 世間子有三種六何為三一者等子 二者勝子三者劣子六何等子謂有 一類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諸生 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 諸酒生放逸處子亦具戒成調善法 能離諸生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 誑語離飲諸酒生放逸處是名等子 六何勝子謂有一類父母具戒成諸 惡法樂行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 行虛誑語行飲諸酒生放逸處子能 持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與取 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生放 逸處是名勝子六何劣子謂有一類 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 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 生放逸處其子犯戒成諸惡法樂行 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行虛誑語 行飲諸酒生放逸處是名劣子如是	本事經卷第七 三法品第三之二 吾從世尊聞如是語慈藹當知於此 世間子有三種六何為三一者等子 二者勝子三者劣子六何等子謂有 一類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諸生 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 諸酒生放逸處子亦具戒成調善法 能離諸生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 誑語離飲諸酒生放逸處是名等子 六何勝子謂有一類父母具戒成諸 惡法樂行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 行虛誑語行飲諸酒生放逸處子能 持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與取 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生放 逸處是名勝子六何劣子謂有一類 父母具戒成調善法能離殺生離不 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飲諸酒 生放逸處其子犯戒成諸惡法樂行 殺生行不與取行欲邪行行虛誑語 行飲諸酒生放逸處是名劣子如是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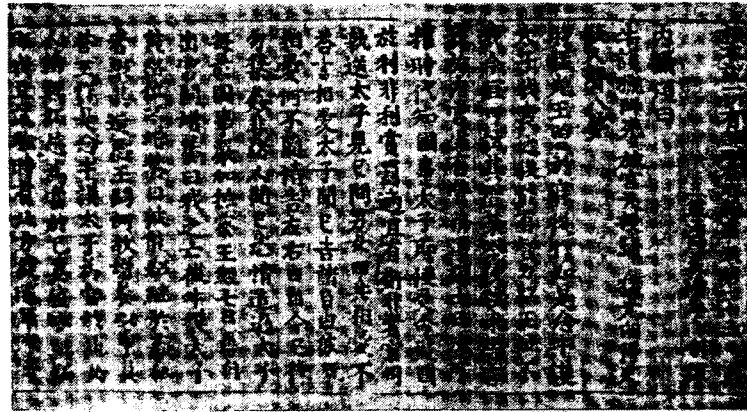
四五 ⑤ 87 摩訶僧祇律卷第十五

是歡得食食者波夜提下食時者初下食更有餘比丘亦如上說作時者初作時更有餘比丘亦如是作竟者一切作供辦訖更有餘比丘比丘居語優婆塞言更有比丘來優婆塞言善哉我故遣請不能得何況自來不名讚歎優婆塞言當多與赴飯好餅食等與不名讚歎若飲食少更語檀越為作一掬匙者波夜提請者稱名請比丘居語檀越言某甲徒眾多聞精進當通請一切名讚歎食若言某甲眾主多聞精進為是比丘故通請二十八人是一人名為讚歎餘者不犯若如是讚歎食當後轉賀食不得捨食而去若比丘坐垢穢不淨不喜與賀者當作是念此鉢中食是某甲比丘許我當食無罪若比丘居語優婆塞言尊者某甲可長請供乞食不名為讚歎是故說

是歡得食食者波夜提下食時者初下食更有餘比丘亦如上說作時者初作時更有餘比丘亦如是作竟者一切作供辦訖更有餘比丘比丘居語優婆塞言更有比丘來優婆塞言善哉我故遣請不能得何況自來不名讚歎優婆塞言當多與赴飯好餅食等與不名讚歎若飲食少更語檀越為作一掬匙者波夜提請者稱名請比丘居語檀越言某甲徒眾多聞精進當通請一切名讚歎食若言某甲眾主多聞精進為是比丘故通請二十八人是一人名為讚歎餘者不犯若如是讚歎食當後轉賀食不得捨食而去若比丘坐垢穢不淨不喜與賀者當作是念此鉢中食是某甲比丘許我當食無罪若比丘居語優婆塞言尊者某甲可長請供乞食不名為讚歎是故說

是歡得食食者波夜提下食時者初下食時更有餘比丘亦如上說作時者初作時更有餘比丘亦如是說作竟歎者一切作供辦訖更有餘比丘比丘居語優婆塞言更有比丘來優婆塞言善哉我故遣請猶不能得何況自來不名讚歎優婆塞言當多與赴餅飯好食等與不名讚歎若飲食少更語檀越為作一掬匙者波夜提請者稱名請比丘居語檀越言某甲徒眾多聞精進當通請一切名讚歎食若言某甲眾主多聞精進為是比丘故通請二十八人是一人名為讚歎餘者不犯若如是讚歎食當後轉賀食不得捨食而去若比丘坐垢穢不淨不喜與賀者當作是念此鉢中食是某甲比丘許我當食無罪若比丘居語優婆塞言尊者某甲可長請供乞食不名為讚歎是故說

廣版 ⑥ 39.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第二十三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第二十三 賊

三藏法師義淨奉 制譯

內攝頌曰

牛護獵師死 放宮天授歸 猛光向得叉 殺人聲八夢

時猛光王曾於寐後作如是念牛護太子我喪之後能有智力紹王位不我今宜可試其智榮今使喚來告言我於內宮少有營務須經七日汝可權時代知國事太子即便受命監國於利非利賞罰適宜有對非者官司執送太子見已問男女曰共相愛不答言相愛太子聞已告諸目曰彼既相愛何不隨情告左右曰自今已後勿禁茲非諸人聞已恣情道過太子每於國事嚴加檢察王經七日尋自出宮問增養曰我之亡後牛護太子能紹位不增養曰彼能紹繼於姦私者縱其造惡王問何故增養以事具答王作是念牛護太子為當於他女人情無妬忌為當於已妻室亦無妬耶我且試驗時有北方健陀羅客寄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第二十三 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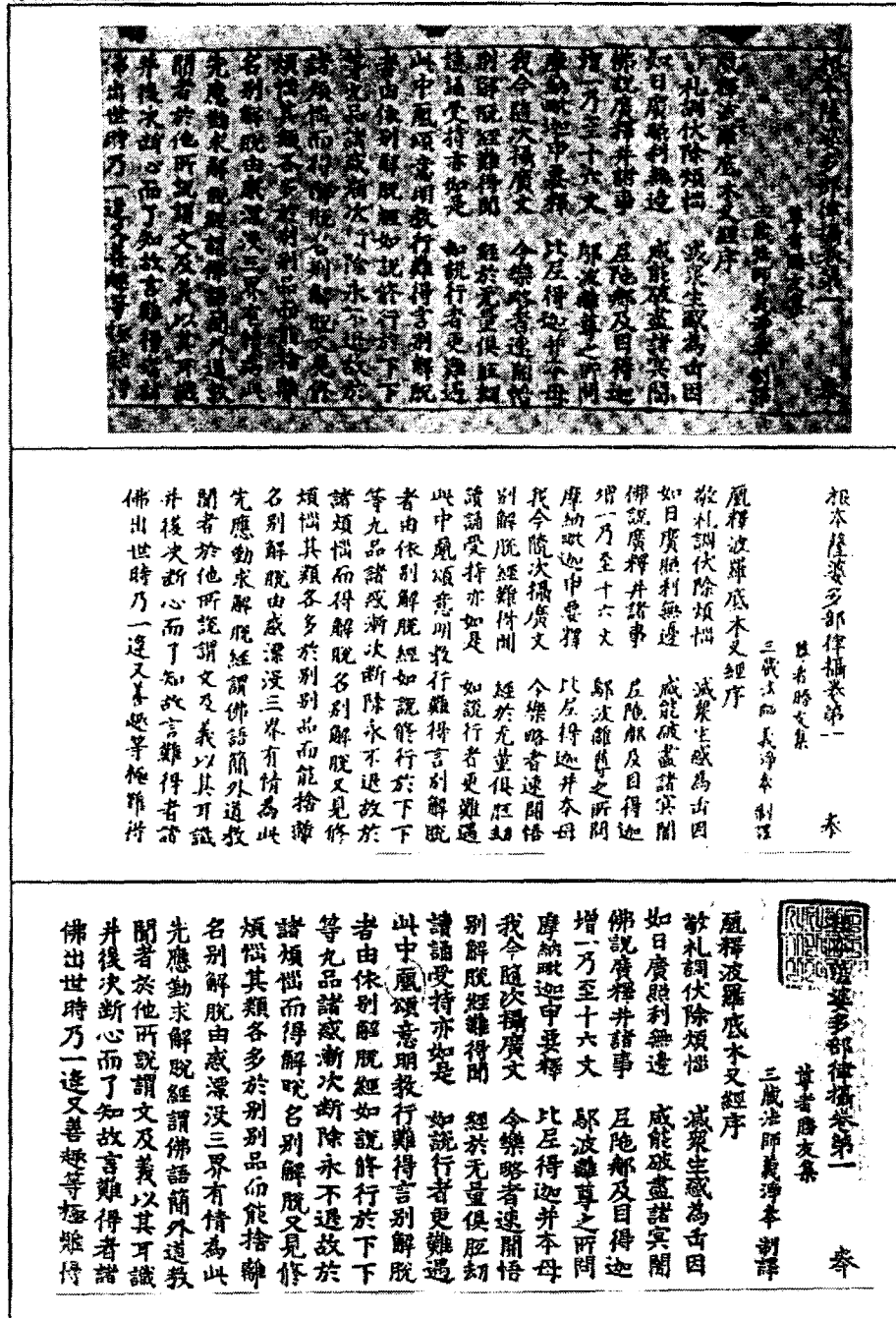
三藏法師義淨奉 制譯

內攝頌曰

牛護獵師死 放宮天授歸 猛光向得叉 殺人聲八夢

時猛光王曾於寐後作如是念牛護太子我喪之後能有智力紹王位不我今宜可試其智榮今使喚來告言我於內宮少有營務須經七日汝可權時代知國事太子即便受命監國於利非利賞罰適宜有對非者官司執送太子見已問男女曰共相愛不答言相愛太子聞已告諸目曰彼既相愛何不隨情告左右曰自今已後勿禁茲非諸人聞已恣情道過太子每於國事嚴加檢察王經七日尋自出宮問增養曰我之亡後牛護太子能紹位不增養曰彼能紹繼於姦私者縱其造惡王問何故增養以事具答王作是念牛護太子為當於他女人情無妬忌為當於已妻室亦無妬耶我且試驗時有北方健陀羅客寄

圖版 ⑦ 46.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一



圖版 ⑤ 51. 阿毗達磨法蘊足論卷第八

阿毗達磨法蘊足論卷第八 尊者大目犍連造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無色品第十三 一時薄伽梵在室羅筏住遊多林給 孤獨園舍時世尊告苾芻衆有四無 色何等爲四謂有苾芻起諸色想滅 有對想不思惟種種想入無邊空 無邊處具足住是名第一復有苾芻 起一切種空無邊處入無邊識識無 邊處具足住是名第二復有苾芻起 一切種識無邊處入無所有無所有 處具足住是名第三復有苾芻起一 切種無所有處入非想非非想處具 足住是名第四 起諸色想者云何諸色想謂眼識相 應想等現前等想解了取像已想 當想摠名色想有作是說與五識相 應想等想乃至已想當想摠名色想 今此義中唯眼識相應想等想乃至 已想當想摠名色想如是色想今時 起越等超越故名起諸色想滅有對	阿毗達磨法蘊足論卷第八 尊者大目犍連造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無色品第十三 一時薄伽梵在室羅筏住遊多林給 孤獨園舍時世尊告苾芻衆有四無 色何等爲四謂有苾芻起諸色想滅 有對想不思惟種種想入無邊空 無邊處具足住是名第一復有苾芻 起一切種空無邊處入無邊識識無 邊處具足住是名第二復有苾芻起 一切種識無邊處入無所有無所有 處具足住是名第三復有苾芻起一 切種無所有處入非想非非想處具 足住是名第四 起諸色想者云何諸色想謂眼識相 應想等現前等想解了取像已想 當想摠名色想有作是說與五識相 應想等想乃至已想當想摠名色想 今此義中唯眼識相應想等想乃至 已想當想摠名色想如是色想今時 起越等超越故名起諸色想滅有對	阿毗達磨法蘊足論卷第八 尊者大目犍連造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無色品第十三 一時薄伽梵在室羅筏住遊多林給 孤獨園舍時世尊告苾芻衆有四無 色何等爲四謂有苾芻起諸色想滅 有對想不思惟種種想入無邊空 無邊處具足住是名第一復有苾芻 起一切種空無邊處入無邊識識無 邊處具足住是名第二復有苾芻起 一切種識無邊處入無所有無所有 處具足住是名第三復有苾芻起一 切種無所有處入非想非非想處具 足住是名第四 起諸色想者云何諸色想謂眼識相 應想等現前等想解了取像已想 當想摠名色想有作是說與五識相 應想等想乃至已想當想摠名色想 今此義中唯眼識相應想等想乃至 已想當想摠名色想如是色想今時 起越等超越故名起諸色想滅有對
---	---	---

圖版 ⑨ 66. 撰集百緣經卷第九

撰集百緣經卷第九 吳月支優婆塞支謙譯 聲聞品第九 海生商主緣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時彼城中五百賈客欲入大海採取珍寶時彼商主選擇族望姪以為婦將共入海足滿十月產一男兒因為立字名曰海生有大福德令諸商客獲大珍寶安隱迴還咸共唱言安隱海生年漸長大重復勸勉更入大海獲其珍寶進引還來值大黑風吹其船舫颺墮羅剎鬼國迴波黑風時諸商人各各跪拜諸天善神无一感應救彼厄難中有優婆塞諸商人言有佛世尊常以大悲晝夜六時觀察衆生護受苦厄輒往度之汝等咸當稱彼佛名或能來此救我等命時諸商人各共同時稱南无佛陀今時世尊遙見商客極遇厄難即放光明照耀黑風風尋消滅皆得解脫各作是言我等今者蒙佛威光脫此諸難今若平安	撰集百緣經卷第九 吳月支優婆塞支謙譯 聲聞品第九 海生商主緣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時彼城中五百賈客欲入大海採取珍寶時彼商主選擇族望姪以為婦將共入海足滿十月產一男兒因為立字名曰海生有大福德令諸商客獲大珍寶安隱迴還咸共唱言安隱海生年漸長大重復勸勉更入大海獲其珍寶進引還來值大黑風吹其船舫颺墮羅剎鬼國迴波黑風時諸商人各各跪拜諸天善神无一感應救彼厄難中有優婆塞諸商人言有佛世尊常以大悲晝夜六時觀察衆生護受苦厄輒往度之汝等咸當稱彼佛名或能來此救我等命時諸商人各共同時稱南无佛陀今時世尊遙見商客極遇厄難即放光明照耀黑風風尋消滅皆得解脫各作是言我等今者蒙佛威光脫此諸難今若平安	撰集百緣經卷第九 吳月支優婆塞支謙譯 聲聞品第九 海生商主緣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時彼城中五百賈客欲入大海採取珍寶時彼商主選擇族望姪以為婦將共入海足滿十月產一男兒因為立字名曰海生有大福德令諸商客獲大珍寶安隱迴還咸共唱言安隱海生年漸長大重復勸勉更入大海獲其珍寶進引還來值大黑風吹其船舫颺墮羅剎鬼國迴波黑風時諸商人各各跪拜諸天善神无一感應救彼厄難中有優婆塞諸商人言有佛世尊常以大悲晝夜六時觀察衆生護受苦厄輒往度之汝等咸當稱彼佛名或能來此救我等命時諸商人各共同時稱南无佛陀今時世尊遙見商客極遇厄難即放光明照耀黑風風尋消滅皆得解脫各作是言我等今者蒙佛威光脫此諸難今若平安
---	---	---

法苑珠林卷第八十二

法苑珠林卷第一

恭敬

清江先生集
卷之八

大

法苑珠林卷第八十二

基敬

沈氏

第五八章

1

—

背皆願。憐陳那。聞已極懷恥。愧合意。

不瞋恨反以誓願欲饒益之佛豈遺

人自以利劍斷佛七支作七瘡孔

去時使便自見爲羯利王佛爲

已佛以神力除彼闇障令其憶念

具壽憺陳那。是是故憺陳那。見聖

今世尊釋迦牟尼是羯利王者即

斷七隨眠當知余時忍辱仙人者

慈心不待汝請最初令汝修七種

瘡孔我未來世得阿耨菩提時以

我實無辜而斷我身今成七分作

忍辱終無有二復發是願如汝今

乃至微塵我亦不生一念瞋念所

疲獸假使斷我一切身今猶如芥

王心便止仙人告言王今何故自

如前令仙人身七令墮地作七磨

Abstract

新製造

圖版 11 1. 耶圖 決定毗尼經

能堪忍以安樂樂今諸眾生皆得度 脫无畏菩薩白佛言世尊我能堪忍 成就饒益无边眾生脫能堪忍 白佛言世尊我能堪忍說无礙法今 諸眾生皆得聞知成就智慧无盡意 菩薩白佛言世尊我能堪忍與發大 願令无盡眾生皆得成就月光菩薩 言我能堪忍今諸眾生常行給施妙 目菩薩言我能堪忍與諸眾生安樂 根本觀世音菩薩言我能堪忍則經 思趣諸眾生等為作歸依得大勢 薩言我能堪忍不度惡趣眾生皆令 得度善數菩薩言我能堪忍今諸眾 生不調伏者令得調伏妙意菩薩言 我能堪忍善樂小法諸眾生等令得 度脫善樂菩薩言我能堪忍卑下難 惡難堪忍眾生皆令成就光積菩薩言 我能堪忍成就解脫脫苦眾生入無 諍善薩言我能堪忍示現正道成就 眾生受見善薩言我能堪忍安樂利 益給施眾生求實智慧不思識善薩 言我能堪忍惡念成就饒見眾生曰 光菩薩言我能堪忍未淨熱眾生能	能堪忍以安樂樂今諸眾生皆得度 脫无畏菩薩白佛言世尊我能堪忍 成就饒益无边眾生脫能堪忍 白佛言世尊我能堪忍說无礙法今 諸眾生皆得聞知成就智慧无盡意 菩薩白佛言世尊我能堪忍與發大 願令无盡眾生皆得成就月光菩薩 言我能堪忍今諸眾生常行給施妙 目菩薩言我能堪忍與諸眾生安樂 根本觀世音菩薩言我能堪忍則經 思趣諸眾生等為作歸依得大勢 薩言我能堪忍不度惡趣眾生皆令 得度善數菩薩言我能堪忍今諸眾 生不調伏者令得調伏妙意菩薩言 我能堪忍善樂小法諸眾生等令得 度脫善樂菩薩言我能堪忍卑下難 惡難堪忍眾生皆令成就光積菩薩言 我能堪忍成就解脫脫苦眾生入無 諍善薩言我能堪忍示現正道成就 眾生受見善薩言我能堪忍安樂利 益給施眾生求實智慧不思識善薩 言我能堪忍惡念成就饒見眾生曰 光菩薩言我能堪忍未淨熱眾生能
---	---

圖版 12 2. 服函 須摩提經

須摩提經 大唐三藏法師玄奘譯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耆闍崛山中與比丘衆千二百五十人菩薩摩訶薩十千人俱時王舍城有長者女名為妙慧年始八歲面貌端正容色姝好諸相具足見者歡喜曾於過去无量諸佛親近供養種種善報時彼女人詣如來所頂禮佛足右繞三匝長跪合掌而說偈言 无上等正覺 為世大明燈 菩薩之所行 唯願聽我聞 佛告妙慧今恣汝問當為解說今新疑網今時妙慧即於佛前以偈問曰 云何得端正 太富尊貴身 復以何因緣 眷屬難沮壞 云何見已身 而受於化生 于善蓮花上 而奉諸聖尊 云何能證得 自在勝神通 遍往无量刹 禮敬於諸佛 云何得无念 所言人信受 淨除於法障 永離諸魔業 云何令終時 得見於諸佛 聞說清淨法 不交於苦惱 大悲无上尊 唯願為我說	須摩提經 大唐三藏法師玄奘譯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耆闍崛山中與比丘衆千二百五十人菩薩摩訶薩十千人俱時王舍城有長者女名為妙慧年始八歲面貌端正容色姝好諸相具足見者歡喜曾於過去无量諸佛親近供養種種善報時彼女人詣如來所頂禮佛足右繞三匝長跪合掌而說偈言 无上等正覺 為世大明燈 菩薩之所行 唯願聽我聞 佛告妙慧今恣汝問當為解說今新疑網今時妙慧即於佛前以偈問曰 云何得端正 太富尊貴身 復以何因緣 眷屬難沮壞 云何見已身 而受於化生 于善蓮花上 而奉諸聖尊 云何能證得 自在勝神通 遍往无量刹 禮敬於諸佛 云何得无念 所言人信受 淨除於法障 永離諸魔業 云何令終時 得見於諸佛 聞說清淨法 不交於苦惱 大悲无上尊 唯願為我說
--	--

圖版 ⑬ 16. 必函 須眞天子經

佛說須眞天子經卷第一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問四事品第一 開如是一時佛遊舍衛國祇樹之園 給飯孤獨精舍與大比丘眾俱比丘 千二百五十人菩薩萬人及諸欲天 子諸色天子諸遍淨天子比丘比丘 尼優婆塞優婆夷於是世尊與無數 數百千之眾圍遶會聚而為說法念 時文殊師利須眞天子於會中坐須 眞天子容象坐定便從坐起整衣服 叉手長跪白佛言願欲有所問惟佛 分別解說其決佛言善哉善哉天子 為世一切求家上義乃以此念問多 施竭所疑便說諸所敬問須眞天子 踊躍歡喜即白佛言世尊何謂菩薩 得不妄信而志大乘何謂菩薩所作 堅強得不怯弱何謂菩薩得無能及 眾禍之福何謂菩薩得如無所畏得 之行何謂菩薩去離災障而得智慧 何謂菩薩入眾勇健得無恐懼何謂 菩薩得所聞義依而有護何謂菩薩	佛說須眞天子經卷第一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問四事品第一 開如是一時佛遊舍衛國祇樹之園 給飯孤獨精舍與大比丘眾俱比丘 百五十人菩薩萬人及諸欲天子諸 色天子諸遍淨天子比丘比丘尼優 婆塞優婆夷於是世尊與無數百 千之眾圍遶會聚而為說法念時文 殊師利童子須眞天子於會中坐須 眞天子容象坐定便從坐起整衣服 叉手長跪白佛言願欲有所問惟佛 分別解說其決佛言善哉善哉天子 為世一切求家上義乃以此念問多 施竭所疑便說諸所敬問須眞天子 踊躍歡喜即白佛言世尊何謂菩薩 得不妄信而志大乘何謂菩薩所作 堅強得不怯弱何謂菩薩得無能及 眾禍之福何謂菩薩得如無所畏得 之行何謂菩薩去離災障而得智慧 何謂菩薩入眾勇健得無恐懼何謂 菩薩得所聞義依而有護何謂菩薩
---	--

第九卷論人攝 兩日 24. 版圖

波羅蜜 釋曰雖已能行施戒若不 忍受苦事則施戒心退弱雖能忍苦 若不勤修諸善息一切惡則施戒忍 心皆退弱故為對治退弱心須立此 二度 論曰退弱心因者謂生死眾 生違逆苦事 釋曰不得理者名生 死眾生乘交善薩教為違逆毀善薩 身為逆此並是苦事若不能忍受此 苦事則生瞋心瞋即是退弱心因 論曰長時助善法加行疲怠 釋曰 精進行於久遠時中修一切善若於 眾生無慈悲心愛惜自身不見所修 行有勝功德故於所修行中生疲怠 心由有此心不能精進即是懶惰懈 懈即是退弱心因 論曰壞失心因 者謂散亂邪智 釋曰由散亂故壞 靜心由邪智故失正解 論曰是故 為對治六種威障立波羅蜜有六數 為一切佛法生起依嚴故者 釋曰 六度是生長佛法因 論曰前四波 羅蜜是不散亂因 釋曰有四障為 散亂因一棄捨障二違靜障三受受 障四數治障由貪著故不能棄捨由	波羅蜜 釋曰雖已能行施戒若不 忍受苦事則施戒心退弱雖能忍苦 若不勤修諸善息一切惡則施戒忍 心皆退弱故為對治退弱心須立此 二度 論曰退弱心因者謂生死眾 生違逆苦事 釋曰不得理者名生 死眾生乘交善薩教為違逆毀善薩 身為逆此並是苦事若不能忍受此 苦事則生瞋心瞋即是退弱心因 論曰長時助善法加行疲怠 釋曰 精進行於久遠時中修一切善若於 眾生無慈悲心愛惜自身不見所修 行有勝功德故於所修行中生疲怠 心由有此心不能精進即是懶惰懈 懈即是退弱心因 論曰若已起 發行及不退弱心為對治壞失心 因故立定慧二波羅蜜壞失心因 者謂散亂邪智 釋曰由散亂故壞 靜心由邪智故失正解 論曰是故 為對治六種威障立波羅蜜有六數 為一切佛法生起依嚴故者 釋曰 六度是生長佛法因 論曰前四波 羅蜜是不散亂因 釋曰有四障為
--	---

同版 58. 同函 集異門足論卷第十四

檀由彼身心無煩擾故領受寂靜過
淨無漏微妙諸受故名無煩天復次
此是彼名異語增諸諸想等想施設
言說謂無煩天故名無煩天云何無
熱天答謂此與彼諸無熱天同一類
為伴侶共衆同分依得事得處得皆
同又若生在無熱天中所有無覆無
記色受想行識蘊是名無熱天復次
以無熱天於苦見苦於集見集於滅
見滅於道見道故名無熱天復次以
無熱天身無熱惱心無熱惱由彼身
心無熱惱故領受寂靜過淨無漏微
妙諸受故名無熱天復次此是彼名
異語增諸諸想等想施設言說謂無
熱天故名無熱天云何善現天答謂
此與彼諸善現天同一類為伴侶共
衆同分依得事得處得皆同又彼生
在善現天中所有無覆無記色受想
行識蘊是名善現天復次以善現天
於苦見苦於集見集於滅見滅於道
見道故名善現天復次以善現天形
色微妙衆所樂親清淨端嚴超過無
煩無熱天衆故名善現天復次此是

檀由彼身心無煩擾故領受寂靜過
淨無漏微妙諸受故名無煩天復次
此是彼名異語增諸諸想等想施設
言說謂無煩天故名無煩天云何無
熱天答謂此與彼諸無熱天同一類
為伴侶共衆同分依得事得處得皆
同又若生在無熱天中所有無覆無
記色受想行識蘊是名無熱天復次
以無熱天於苦見苦於集見集於滅
見滅於道見道故名無熱天復次以
無熱天身無熱惱心無熱惱由彼身
心無熱惱故領受寂靜過淨無漏微
妙諸受故名無熱天復次此是彼名
異語增諸諸想等想施設言說謂無
熱天故名無熱天云何善現天答謂
此與彼諸善現天同一類為伴侶共
衆同分依得事得處得皆同又彼生
在善現天中所有無覆無記色受想
行識蘊是名善現天復次以善現天
於苦見苦於集見集於滅見滅於道
見道故名善現天復次以善現天形
色微妙衆所樂親清淨端嚴超過無
煩無熱天衆故名善現天復次此是

增諸諸想等想施設言說謂色究竟
天或謂究竟天故名色究竟天或
名礙究竟天
五出離界者云何為五具壽當知
諸有多聞聖弟子衆具猛利見若
念諸欲便於諸欲心不趣入不信樂
不安住無勝解卷縮不伸并捨而住
狀惡毀制伏違逆如燒筋羽卷縮
不伸如是多聞聖弟子衆具猛利見
若念諸欲便於諸欲心不趣入乃至
廣說若念出離便於出離深心趣入
信樂安住有勝解不卷縮恒舒泰心
不狀毀任運現行其心安樂易善修
習於諸欲從後起已離繫解脫不受彼
因故緣諸受如是名為於欲出離於
意無患於害無害於色無色應知亦
令具壽當知諸有多聞聖弟子衆具
猛利見若念有身便於有身心不趣
入不信樂不安住無勝解卷縮不伸
并捨而住狀惡毀制伏違逆如燒
筋羽卷縮不伸如是多聞聖弟子衆